

아파트 지하실서 끼니·용변 해결하는 미화원... '인권 사각'

미화원, 아파트 지하 배관실서 스티로폼판 깔고 휴식 화장실·세면대도 없어 고무관 끌어와 빨래·용변 해결 "근로 환경 개선 요구하다 재계약 못할까" 속만 끊어

"실 공간이 따로 없어 직접 단열재를 가져다 지하실에 휴게 공간을 만들었죠."

지난 22일 정오께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지하 1층 배관실.

단지 내 출입문·계단·복도·엘리베이터 등 곳곳을 쓸고 닦으며 청결을 담당하는 미화원에게 "쾌적하고 따뜻한" 휴게 공간은 없었다.

두건·앞치마를 두른 미화원들은 오전 일과를 마친 뒤 구슬땀을 닦으며 대걸레, 유리 세정제 등이 담긴 수레를 끌고 지하로 향했다.

지하 1층 '관계자 외 출입 금지' 문

구가 붙은 철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어둠 속에서 천장 배관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회색 콘크리트 구조물이 드러났다.

백열등 전원을 켜 뒤 희미한 불빛을 따라 몇 걸을 옮기자, 기동과 기동 사이에 각각 12㎡(4평) 남짓한 공간이 있었고 청소 도구와 생활용품 등이 놓여 있었다.

한 쪽에는 식탁과 냉장고 등 주방 용품이 비치된 '식사 공간'이 눈에 띄었다. 다른 한쪽에는 출근복을 걸어둔 옷걸이와 몸을 누일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있었다. 바로 옆에는 호스와 물

통·밀걸레 등이 세워져 있는 '세탁 공간'이 있었다.

미화원들은 이 곳을 '휴게 공간'이라고 소개했다. 이 곳에서 미화원들은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하고 휴식 시간을 갖는다.

지하 휴게 공간은 별도의 단열재가 없어 추위에 취약해 보였다.

미화원들이 스티로폼 장판을 깔고 벽면에 단열 소재 돗자리를 붙였지만, 사방에서 뚫고 나오는 냉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른바 '식당'이라고 불리우는 곳의 위생 상태도 심각했다. 식탁 옆 벽면에는 곰팡이가 슬었고, 천장을 지나 배관에 수북이 쌓인 먼지 사이로 벌레들이 지나갔다.

세탁 공간에는 천장 배관과 연결된 고무관이 전부였다.

수도 밸브를 열어 업무 중 사용한 손걸레·대걸레에 물을 뿌린 뒤 쪼그려 앉아 빨래를 해야만 했다. 빨래 중

인 한 미화원은 수 차례 일어서서 허리를 두드리기도 했다.

화장실도 열악했다. '휴게 공간'에서 50m가량 떨어진 관리사무소에 화장실이 있지만, 하루에 100~150가구(2~3개동)의 청소 할당량을 채우려면 이동 시간까지 줄여야 하는 처지였다.

미화원들은 지하실 하수구에서 소변을 해결한 뒤 바가지로 물을 부어 흘러보내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또다른 광주 모 아파트 내 미화원 휴게 공간도 사정은 비슷했다. 1층 엘리베이터 옆 높이 1m가량의 작은 문을 열자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5m가량 안으로 들어가자 구조물 사이 약 10㎡(3평) 공간에 건조대가 눈에 띄었다. 건조대에는 걸레, 장화 등이 걸려있어 '휴게실'임을 짐작케 했다.

조그마한 창을 통해 햇빛이 들어왔

지만, 지하의 음산한 기운이 곳곳에 감돌았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 사람 1명이 간신히 몸을 누일 수 있는 면적의 스티로폼 단열재 4~5개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매트리스' 역할을 하는 단열재 위에는 담요와 간이 전기 장판이 있었다.

바로 옆 공간에는 천장 배관과 연결된 고무관을 통해 찬물이 나왔고, 삼푸와 바디워시 등이 놓여 있었다. 미화원들이 업무 이후 땀을 씻어내는 샤워실은 없었다.

60대 여성 미화원 A씨는 "겨울엔 추위에, 여름엔 코를 찌르는 곰팡내가 나는 지하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큰 소원이 아니다. 사람답게 별 드는 방에서 점심 먹고 잠시 쉬길 바란다"고 한숨을 쉬었다.

'계약직' 신분엔 처우 개선 요구를 할 수 없다는 하소연도 있었다.

50대 여성 미화원 B씨는 "미화원 대

부분이 용역업체와 1년 단위 계약을 맺는다. 관리사무소·아파트 주민자치회·용역업체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고 이른바 '모범미화원'이 되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면 고용 연장이 불투명해질까 걱정돼 묵묵히 일만 한다"고 말했다.

정찬호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장은 24일 "미화원, 경비원,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관리 종사자를 포괄하는 지원 조례 입법을 시 의회와 시 주무부서와 협의하고 있다. 열악한 노동 조건에서 일하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 주택 조례 제6조에는 '100세대 이상 주택 단지는 청소·경비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세면 시설 등 위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선욱기자



거리두기 완화 이후 첫 주말, 살아나는 카페 분위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운영제한이 완화된 이후 첫 주말인 24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 시민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유흥주점·노래방 폼수영업 집중단속...경찰 "엄정처벌"

경찰이 무허가 유흥시설 영업 등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저해 가능성을 우려, 집중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동으로 무허가, 불법 유흥 영업 관련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유흥 관련 변칙, 무허

가 영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래연습장 등록, 일반음식점 신고하고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업소 등이 해당한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빛내리교회발(發) 무더기 확진...3층서 집단 숙식

신도 30명 및 관련 유치원 137명 등 전수검사



광주시 북구의 빛내리교회에서 숙식한 신도·가족 등 1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무더기 확진됐다.

교회 건물에서 함께 한 집단 숙식과 학습이 '코로나19' 확산의 매개체가 되면서 추가 감염자를 쫓는 방역도 비상이 걸렸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광주 1479번~1495번)가 신규로 추가됐다.

또 24일 오후 2시 현재 5명(1496~1500번)이 확진돼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23일 15명과 24일 3명 등 18명이 북구 빛내리교회 관계자와 신도들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23일 오전 확진된 광주 1479번이 교회를 다닌 것으로 파악하고 밀접 접촉자를 추적한 끝에 교인과 가족 등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 교회 첫 확진자로 알려진 광주 1479번은 발열 증상이 나타나 22일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방역당국은 교회가 있는 3층 건물을 주목했으며 최소한 20

여명의 친인척과 가족, 신도 등이 홈스쿨링 교육을 위해서 3층 주거지에서 숙식을 함께 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30명을 검사했다.

양성 18명, 음성 5명, 7명은 진행 중이며 빛내리 교회는 24일 폐쇄됐다.

다만 2층 교회에서 이뤄진 예배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비대면, 소수의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추가로 1층 국제학교 등에서도 방역수칙 미이행 여부가 있는지 등 현장 확인을 통해 면밀히 따질 계획이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교인이 관련된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24일 전수검사를 진행했다.

유치원 교사 등 직원 22명과 원생 115명 등 137명을 검사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교회의 예배 과정에서 발열수칙을 준수했으나, 3층 거주 공간에서 다수의 학생과 교사가 식사와 공부를 함께 하면서 확진자가 늘었다"며 "현장 확인 및 정밀 역학 조사 등을 통해 추가 감염 여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조인호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